

宗親射○丙戌禮曹啓天使鄭同護送軍回
被搶擄○百有殺難知然理宜收恤其家請依

復戶免○
從之但稅則止免一年○丁

御經筵講記○
手令李堪請承政院擅望提調

副提調○
衣院內醫院瓦署提調承

入望方有○
不必鞠也李堪等更請之

恩情○
兄增對曰情實未可知也差

藥房○
養院則承旨燕之瓦署則

署小○
足以察之臣意以謂革

旨○
上特以內臣不論恐不可也

罰○
此犯○
忘之常典也請鞠之○
不聽○

官鄭光世閔師濤啓曰我國書冊盡在景福

直宿而已館後香室無看守之物而正兵

朝鮮王朝實錄鈔 漢城府資料集 26

宣祖 28年(1595) ~ 宣祖 29年(1596)



서울특별시史編纂委員會

朝鮮王朝實錄鈔

漢城府資料集 26

宣祖 28年(1595) ~ 宣祖 29年(1596)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일러두기

1. 본 자료집에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및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번역한 『朝鮮王朝實錄』 번역본 중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에서 宣祖 28年(1595) 8월~宣祖 29年(1596) 12월까지의 서울관계 기사를 발췌·수록하였다. 수록된 기사는 서울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수정하기도 하였다.
2. 자료집 뒤에 실록 원문을 수록하였다. 원문 발췌 자료로 표점이 없는 『조선왕조실록』 영인본을 사용하였다.
3. 발췌는 서울의 명칭(京都, 京師, 漢京, 漢城, 漢陽, 都邑, 京中, 京城, 新都 등), 서울의 행정구역, 한성부 관직(漢城尹, 左尹, 右尹, 少尹, 府尹 등), 한성부의 건축물(宮闕, 官衙, 宗廟, 社稷, 陵, 門, 寺, 亭, 齋 등), 서울 관련 용어가 포함된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서울과 관계된 정책, 사건, 생활기사 등도 모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4. 왕이나 왕실의 반복되는 일상사 및 왕족의 개인적인 행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록하지 않았다.
5. 국가 전반에 관계된 사항이라도 서울에 영향을 미쳤던 법 제정과 개정, 사건, 인물 등의 기사는 수록하였다.
6. 현재 서울에 편입된 지역의 행정, 사건, 인물 기사는 수록하였다.
7. 「선조수정실록」의 기사는 해당 월의 마지막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선조실록」의 해당 기사에 이어서 배치하여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각 기사의 번역문과 원문에는 수록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9. 각 기사는 실록 출전과 해당 연·월·일(간지)을 명기한 후, 원전의 권수와 쪽수를 표기하였고, 이어서 제목을 달았다. 기사의 제목은 서술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10. 인명, 지명, 명칭 등의 경우 ()안에 한자를 표기하였다. 한자는 동일 기사 내에서는 반복하여 표기하지 않았으나, 기사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각각 표기하였다.
11. 풀이를 의미하는 한자는 []로 표시하였다.
12. 번역문에 포함된 각주는 재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더 풀이가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자가 별도의 註를 단 경우도 있다. 편집자가 보충한 주는 『한국고전용어사전』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역주경국대전』 및 기타 연구서 등을 참조하였으나 참고서적을 따로 명기하지는 않았다.

목 차

1060. 선조실록 권66 선조 28년 8월 1일(신축) 【22집 542면】 25
 임금이 정릉동 행궁에 머물다
1061. 선조실록 권66 선조 28년 8월 2일(임인) 【22집 542면】 25
 병조에서 성중 거주민의 활쏘기를 시험 보여 시상하고 장부에
 이름을 기재하여 군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건의하다
1062. 선조실록 권66 선조 28년 8월 17일(정사) 【22집 546면】 26
 남별궁에서 명나라 사신과 함께 명 황제 생일을 축하하는 의례를
 행하다
1063. 선조실록 권66 선조 28년 8월 18일(무오) 【22집 546면】 26
 예조의 건의로 종학을 수리하여 태묘의 신어를 봉안하기로 하다
1064. 선조실록 권66 선조 28년 8월 27일(정묘) 【22집 548면】 27
 시간원에서 경강의 주사대장 혁파와 강화진장장에서 민간 경작을
 허락하는 정책을 건의하다
1065. 선조실록 권66 선조 28년 8월 28일(무진) 【22집 548면】 28
 접대도감의 건의로 창녀들이 명나라 병사를 따라 경강을 넘는 것을
 막도록 하다
1066. 선조실록 권66 선조 28년 8월 29일(기사) 【22집 549면】 29
 비변사에서 경강 일대를 지키고 병력을 훈련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주사대장을 그대로 존속시킬 것을 건의하다
1067. 선조수정실록 권29 선조 28년 8월 【25집 655면】 29
 왕비·후궁 및 왕자 일행이 해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다
1068. 선조실록 권67 선조 28년 9월 1일(경오) 【22집 549면】 30
 임금이 정릉동 행궁에 머물다

1069. 선조실록 권67 선조 28년 9월 3일(임신) 【22집 550면】 30
비변사에서 백성의 지대 부담을 이유로 국왕의 능행을 연기하도록 건의하였으나 거부하다
1070. 선조실록 권67 선조 28년 9월 4일(계유) 【22집 550면】 31
승례문 밖에서 일본 왕을 책봉하러 가는 명나라 사신의 전별 잔치를 베풀다
1071. 선조실록 권67 선조 28년 9월 10일(기묘) 【22집 553면】 32
서교에 거동하여 강무를 시행하고 무예를 시험하여 시상하다
1072. 선조실록 권67 선조 28년 9월 15일(갑신) 【22집 556면】 33
비변사에서 서울로 유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삼강 일대의 백성을 침탈하는 아문의 폐단을 금지하는 방안을 건의하다
1073. 선조실록 권67 선조 28년 9월 17일(병술) 【22집 556면】 34
경연에 참석한 후 왕비의 서울 진주 및 국왕의 거취 등에 대해서 신료들과 의견을 나누다
1074. 선조실록 권67 선조 28년 9월 18일(정해) 【22집 557면】 36
임금이 직접 무사를 시험하기로 하여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게 하다
1075. 선조실록 권67 선조 28년 9월 21일(경인) 【22집 559면】 37
별전에서 선전관을 시험보이고 무사 시재·노을가적을 위한 잔치 등에 대해 논의하다
1076. 선조실록 권67 선조 28년 9월 24일(계사) 【22집 561면】 38
좌의정 김응남이 공물작미 반대, 훈련도감 군사 중 포수·살수에 대한 지나친 우대 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내다
1077. 선조실록 권67 선조 28년 9월 24일(계사) 【22집 563면】 44
유근을 한성부판윤에 임명하다
1078. 선조실록 권67 선조 28년 9월 25일(갑오) 【22집 563면】 44
금균을 육냥전으로 시재하고 재능이 없는 자를 도태시킬 것을 지시하다

1079. 선조실록 권67 선조 28년 9월 28일(정유) 【22집 563면】 45
경연을 마치고 중전의 서울 귀환, 열성 신위의 봉안처 조성 등의
현안에 대해 신하들과 논의하다
1080. 선조실록 권68 선조 28년 10월 5일(갑진) 【22집 572면】 50
별전에 가서 무예를 시험하고 상을 주다
1081. 선조실록 권68 선조 28년 10월 8일(정미) 【22집 575면】 50
임금이 승례문 밖에 가서 무예를 친히 시험하고 상을 주다
1082. 선조실록 권68 선조 28년 10월 9일(무신) 【22집 575면】 51
사람이 왕례하는 길이라는 이유로 승례문 밖에서 시재하지
못하도록 하다
1083. 선조실록 권68 선조 28년 10월 9일(무신) 【22집 576면】 51
권율 등을 한성부판윤에 임명하다
1084. 선조실록 권68 선조 28년 10월 13일(임자) 【22집 577면】 51
황우한을 한성부좌윤 등에 임명하다
1085. 선조실록 권68 선조 28년 10월 14일(계축) 【22집 577면】 52
금군의 취재·승진·능료 등을 제대로 시행할 것을 병조에 전교하다
1086. 선조실록 권68 선조 28년 10월 17일(병진) 【22집 578면】 52
별전에서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고, 남방과 서북쪽의 변고를
검토하면서 서울 경기의 정황 등 전국의 상황을 논의하다
1087. 선조실록 권68 선조 28년 10월 20일(기미) 【22집 582면】 64
사간원에서 중전의 환도를 건의하였으나 윤택하지 않다
1088. 선조실록 권68 선조 28년 10월 20일(기미) 【22집 582면】 64
승정원에서 중전 환도 건의에 대한 임금의 거부가 서울의 인심을
의혹시킨다고 아뢰다
1089. 선조실록 권68 선조 28년 10월 20일(기미) 【22집 582면】 65
종묘의 개수 공사를 주산의 참호를 메운 다음 내년 봄부터
시작하기로 하다

1090. 선조실록 권68 선조 28년 10월 22일(신유) 【22집 583면】 65
 임금의 거처를 옮기면서 내시의 집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승정원
 사무실을 이전하도록 지시하다
1091. 선조실록 권68 선조 28년 10월 23일(임술) 【22집 584면】 66
 비변사의 건의로 명나라 이제독의 사당에 제사지내도록
 평안감사에게 하서하기로 하다
1092. 선조실록 권68 선조 28년 10월 25일(갑자) 【22집 585면】 66
 호조의 건의로 명나라 군의 양곡을 마련하기 위해 미납한 전세를
 징수할 관원을 파견하기로 하다
1093. 선조실록 권69 선조 28년 11월 1일(기사) 【22집 591면】 67
 정릉동 행궁에 머물다
1094. 선조실록 권69 선조 28년 11월 4일(임신) 【22집 592면】 67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 서울 성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부역을 면제하다
1095. 선조실록 권69 선조 28년 11월 4일(임신) 【22집 592면】 68
 사재감에서 왕실 및 명나라 사신 지대에 필요한 땔나무 생산 등의
 수요를 감당할 방안을 건의하다
1096. 선조실록 권69 선조 28년 11월 9일(정축) 【22집 595면】 69
 중전이 벽제에서 유숙하다
1097. 선조실록 권69 선조 28년 11월 10일(무인) 【22집 596면】 69
 중전이 궁궐로 돌아오다
1098. 선조실록 권69 선조 28년 11월 30일(무술) 【22집 604면】 70
 서울 및 지방의 전사자 가족에게 매년 음식과 물건을 하사하도록
 하다
1099. 선조실록 권70 선조 28년 12월 1일(기해) 【22집 606면】 70
 왕이 정릉동 행궁에 머물다

1100. 선조실록 권70 선조 28년 12월 24일(임술) 【22집 616면】 70
 명나라 도사가 명나라 차견 관원의 서울에서의 행패를 명나라
 조정에게 보고하는 품첩을 작성하다
1101. 선조실록 권70 선조 28년 12월 26일(갑자) 【22집 617면】 72
 병조에서 무과 출신자를 1개월씩 번을 서게 하여 서울을 호위하는
 방안을 건의하다
1102. 선조실록 권71 선조 29년 정월 1일(무진) 【22집 620면】 73
 처음 망궤례를 행하다
1103. 선조실록 권71 선조 29년 정월 24일(신묘) 【22집 636면】 74
 훈련도감에서 5위 제도를 법전과 같이 정비하도록 건의하다
1104. 선조실록 권71 선조 29년 정월 24일(신묘) 【22집 636면】 75
 비변사에서 서울의 방어를 위해 전국의 방어 체계를 다시 설정하는
 방안을 보고하다
1105. 선조실록 권71 선조 29년 정월 27일(갑오) 【22집 638면】 76
 사헌부에서 서울의 방어를 위해 각도의 중요한 산성에 영문을
 설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건의하다
1106. 선조실록 권71 선조 29년 정월 28일(을미) 【22집 638면】 79
 서울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방어 시설의 확충 및 경강 일대의
 백성 안집책 등을 논의하다
1107. 선조실록 권71 선조 29년 정월 28일(을미) 【22집 639면】 81
 비변사에서 서울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포루의 설치,
 방어장치의 강화, 병영의 신설 등을 건의하다
1108. 선조실록 권71 선조 29년 정월 28일(을미) 【22집 639면】 84
 비변사에서 서울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성 시설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내용을 보고하다
1109. 선조실록 권71 선조 29년 정월 30일(정유) 【22집 640면】 85
 남부주부 신충일이 변방 오랑캐의 실정에 대하여 서계를 올린다

1110. 선조실록 권72 선조 29년 2월 1일(무술) 【22집 645면】 102
정릉동 행궁에 있다
1111. 선조실록 권72 선조 29년 2월 1일(무술) 【22집 645면】 102
비변사에서 서울 방어를 위해 강원도 일원에서 시행해야 할 조처를
건의하다
1112. 선조실록 권72 선조 29년 2월 8일(을사) 【22집 646면】 103
종묘수조도감에서 산릉이 파괴된 곳의 보토 작업을 건의하다
1113. 선조실록 권72 선조 29년 2월 12일(기유) 【22집 647면】 104
종묘수조도감의 건의로 종묘 뒤 산맥이 파인 곳의 흙을 메우기로
하다
1114. 선조실록 권72 선조 29년 2월 13일(경술) 【22집 647면】 105
사간원에서 왜적의 서울 점령시 부역 죄인에 대한 심문 과실로
우변포도대장을 처벌하는 건 등을 아뢰다
1115. 선조실록 권72 선조 29년 2월 16일(계축) 【22집 648면】 105
사헌부에서 대궐 동문 밖의 포장공사로 백성들에게 폐단을 일으킨
한성부 관원의 처벌 등 현안을 아뢰다
1116. 선조실록 권72 선조 29년 2월 16일(계축) 【22집 648면】 106
이조판서 김우옹이 서울의 방어를 견고히 하기 위해 전국적인 방어
체계의 정비와 시행해야 할 현안에 대해 상소하다
1117. 선조실록 권72 선조 29년 2월 17일(갑인) 【22집 649면】 111
훈련도감의 건의로 왜인의 진법을 전수받게 할 목적으로
한성부에서 아동을 뽑아 훈련하도록 하다
1118. 선조실록 권72 선조 29년 2월 18일(을묘) 【22집 649면】 112
서울 일원에서 행패를 일삼는 무창수 이효생을 잡아다 죄주기로
하다
1119. 선조실록 권72 선조 29년 2월 21일(무오) 【22집 651면】 113
사간원에서 각사와 궁중의 인원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여 국고를
저축하자고 청하다

1120. 선조실록 권72 선조 29년 2월 22일(기미) 【22집 651면】 113
 김상용이 남산에 산성을 세워 서울을 방비하는 계책을 아뢰었으나
 임금이 불신하다
1121. 선조실록 권72 선조 29년 2월 27일(갑자) 【22집 652면】 115
 상산군 박충간의 종묘수조도감 당상직 임명을 취소하다
1122. 선조실록 권72 선조 29년 2월 28일(을축) 【22집 653면】 116
 황신이 어전에서 심유경이 왜로 간 이유와 왜의 동태 및 대책 등을
 보고·논의하다
1123.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1일(무진) 【22집 654면】 118
 임금이 정릉동 행궁에 있다
1124.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2일(기사) 【22집 654면】 118
 당상관은 남색, 당하관은 흑색으로 복색을 정비하라고 지시하다
1125.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2일(기사) 【22집 654면】 119
 관원 복색에서 자황색을 금하기로 하고 세자의 복색을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다
1126.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2일(기사) 【22집 655면】 120
 종묘수조도감에서 종묘 정전 뒤 터의 매장지를 조사하고 소나무
 조각 등이 발굴되었음을 보고하다
1127.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3일(경오) 【22집 655면】 121
 동궁의 병이 낫자 도제조 김응남 등에게 말을 하사하고, 의관 허준
 등은 승급시키다
1128.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3일(경오) 【22집 655면】 122
 병조판서 이덕형이 중흥동 산성을 둘러보고 주위의 형세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고하다..... 122
1129.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4일(신미) 【22집 656면】 124
 임지로 가는 도원수 권율을 인견하고 장수들에 대한 의견을 듣다

1130.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5일(임신) 【22집 657면】 126
간원에서 동궁을 보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빈사의 교체를
건의하다
1131.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8일(을해) 【22집 658면】 127
예조에서 동궁의 복색으로 익선관과 적색포를 건의하다
1132.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8일(을해) 【22집 658면】 127
음주 가무하는 자를 한성부와 사헌부에서 금단하도록 지시하다
1133.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8일(을해) 【22집 658면】 128
현릉의 음식 준비하는 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금군 등을
동원하여 불을 끄다
1134.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8일(을해) 【22집 659면】 128
예조에서 현릉의 잔디가 불탔으니 곡림·변복 및 위안 등의 의식을
행할 것을 청하다
1135.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8일(을해) 【22집 659면】 129
정원에서 현릉의 관리를 제대로 못한 참봉 및 수호군을 잡아와서
조사할 것을 청하다
1136.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9일(병자) 【22집 659면】 129
궁궐에 가까운 민가에서 음주 가무한 자를 체포하였으나
방면하도록 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지시하다
1137.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9일(병자) 【22집 659면】 130
서울에 체류 중인 명나라 도지휘사 오종도가 임금을 위로하는
게첩을 보내다
1138.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9일(병자) 【22집 659면】 131
정조시에도 현릉 참봉의 추국은 진행할 것을 지시하다
1139.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10일(정축) 【22집 659면】 131
좌의정 김응남 등이 현릉의 화재난 곳을 봉심한 결과를 보고하다

1140.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12일(기묘) 【22집 660면】 132
관상감이 남산에 올라가 월식이 나타나면 즉시 방화한 다음에
월식을 구하자고 청하다
1141.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13일(경진) 【22집 660면】 133
병조의 건의로 시골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군사를 서울로 모아
위급함에 대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1142.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13일(경진) 【22집 660면】 135
전 참봉 황정직이 아버지 황진의 공로로 참봉에 제수됨을 사양한
상소
1143.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14일(신사) 【22집 661면】 137
화재가 난 현릉의 능 위 사토만 보수하기로 하다
1144.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19일(병술) 【22집 662면】 138
다음달 4일 세자가 친히 모화관에서 열병하도록 하다
1145.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20일(정해) 【22집 663면】 138
경연이 끝나고 인가가 훼손되어 서울에 백성이 거처할 곳을
마련하는 문제 등의 현안을 논의하다
1146.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21일(무자) 【22집 663면】 140
종부시의 건의로 세조대왕의 어진을 종묘에 봉안하기로 하다
1147.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22일(기축) 【22집 663면】 141
사간원에서 서울의 절대 사수를 비롯한 위란의 시기에 힘쓸 사안에
대해 차자를 올리다
1148.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27일(갑오) 【22집 667면】 148
다음달 능침을 참배할 때 부역을 동원하지 말 것을 경기감사에게
명하다
1149.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28일(을미) 【22집 667면】 149
종묘수조도감의 건의로 정전 뒤뜰을 파내어 상목주(桑木主)을
찾기로 하다

1150.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28일(을미) 【22집 667면】 149
예조에서 목주 봉안의 문제가 중대하니 대신과 의논하여
정탈하도록 하다
1151.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28일(을미) 【22집 667면】 150
예조에서 종묘의 상목주를 봉안하는 일에 대하여 대신과 의논한
결과를 보고하다
1152.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29일(병신) 【22집 667면】 150
궁궐에 벼락이 치다
1153. 선조실록 권73 선조 29년 3월 29일(병신) 【22집 667면】 150
접대도감에서 당필승이 가져온 차부를 보고하다
1154.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1일(정유) 【22집 668면】 153
임금이 정릉동 행궁에 머물다
1155.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1일(정유) 【22집 668면】 153
벼락으로 하향 대제에 쓸 인마가 죽었으므로 배릉을 추수 뒤로
미루기로 하다
1156.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1일(정유) 【22집 668면】 154
승정원에서 종묘에 친향할 것을 청하다
1157.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2일(무술) 【22집 668면】 155
노모를 만나고 돌아온 유성룡을 인견하고 서울의 방어를 위한
전국의 편제 방식 및 기타 현안을 논의하다
1158.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3일(기해) 【22집 672면】 166
종묘수조도감에서 정전 뒤뜰에서 발견한 상목주를 봉안하였음을
보고하다
1159.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4일(경자) 【22집 674면】 166
왕세자가 문안하고, 모화관에서 습진하다
1160.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7일(계묘) 【22집 676면】 167
정원에서 선릉·정릉의 시신 문제에 대한 대신들의 논의를 보고하다

1161.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8일(갑진) 【22집 676면】 168
 접대도감에서 심유경이 관백의 차사에게 구타당했다는 말을 듣고
 정사가 왜영을 탈출하였다고 보고하다
1162.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9일(을사) 【22집 677면】 168
 접대도감에서 명나라 정사 수행원 이서가 용절·인신·칙서 등을
 가지고 왜영을 빠져나온 경위를 보고하다
1163.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10일(병오) 【22집 677면】 169
 명나라 정사의 접반사 김수와 남호정을 인견하여 정사의 탈출
 연유에 대하여 묻다
1164.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10일(병오) 【22집 679면】 172
 종묘의 옛 터에서 나온 옥책을 종묘에 봉안하다
1165.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10일(병오) 【22집 679면】 172
 예조에서 종묘 뒤편에서 나온 상주를 북쪽 계단 동편의 뜰에 묻어
 봉안토록 청하다
1166.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10일(병오) 【22집 680면】 173
 한성부로 하여금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를 단속토록 하다
1167.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14일(경술) 【22집 684면】 173
 임진년 변란 때 조신의 가족 중 먼저 도망한 자들의 색출하여
 명단을 작성토록 하다
1168.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14일(경술) 【22집 684면】 174
 정원에서 도성 밖으로 도망간 자들에 대하여 포용하자고 청하다
1169.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15일(신해) 【22집 685면】 175
 탈출한 명나라 정사가 홍인문 밖에 관소를 정하다
1170.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16일(임자) 【22집 686면】 175
 병마를 보낼 것이라는 명나라 자문에 따라 군량 및 마초의 마련
 방안에 대한 답장을 준비하다

1171.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17일(계축) 【22집 688면】 178
 사헌부에서 도성 밖으로 가족을 피신시키는 벼슬아치들의 파직을
 청하다
1172.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17일(계축) 【22집 688면】 179
 비변사에서 서울의 사수를 굳건히 하여 민심을 안정시킬 것을
 청하다
1173.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17일(계축) 【22집 688면】 180
 명나라 군대가 온다는 말이 서울 백성들 사이에 돌고 있으니 군사
 비밀의 누설을 엄격히 통제하게 하다
1174.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17일(계축) 【22집 688면】 181
 유성룡이 서울의 방어를 위해 수원 등지의 성을 수축하고 군량을
 저축할 것을 건의하다
1175.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20일(병진) 【22집 690면】 182
 임금이 승례문 밖 명나라 사신의 관소로 가서 접견례를 행하다
1176.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21일(정사) 【22집 692면】 185
 호조에서 명나라에서 새로 유입되는 병마의 반년 양료에 대한
 대책을 아뢰다
1177.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21일(정사) 【22집 692면】 187
 호조에서 명나라 군대의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보고하다
1178.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24일(경신) 【22집 693면】 188
 이항복을 인견하고 명나라 정사가 탈출한 곡절과 지방의 동향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1179.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24일(경신) 【22집 695면】 195
 모화관에 나아가 왜영에서 탈출한 명나라 정사를 전송하다
1180.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25일(신유) 【22집 695면】 197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고, 벼락이 천벌인가를 논의하다
1181. 선조실록 권75 선조 29년 5월 1일(정묘) 【22집 698면】 199
 제멋대로 출입하여 시위하지 않은 봉산부령 이진을 파직시키다

1182. 선조실록 권75 선조 29년 5월 1일(정묘) 【22집 699면】 199
경기전과 봉선전의 어진을 태묘로 이안하는 일은 봉심한 뒤에
처치하도록 하다
1183. 선조실록 권75 선조 29년 5월 5일(신미) 【22집 704면】 200
가뭄으로 기우제를 지내다
1184. 선조실록 권75 선조 29년 5월 7일(계유) 【22집 704면】 200
《주역》을 강독한 후 서울을 사수하는 방안, 명사신을 맞이하는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다
1185. 선조실록 권75 선조 29년 5월 8일(갑술) 【22집 705면】 204
사도시의 맷쌀을 친척에게 방납하게 한 수원부사 등을 처벌하다
1186. 선조실록 권75 선조 29년 5월 8일(갑술) 【22집 706면】 205
접대도감에서 국왕과의 면대를 청한 명나라 사신의 접대가
평범해서는 안 됨을 아뢰다
1187. 선조실록 권75 선조 29년 5월 11일(정축) 【22집 708면】 206
의금부가 아뢰 명나라 파발 담당자 살해사건 관련자에 대해
계복하지 말고 처결케 하다
1188. 선조실록 권75 선조 29년 5월 13일(기묘) 【22집 708면】 207
영서의 명나라 출신 파발아를 죽인 자를 체포하는데 공이 있는
사람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다
1189. 선조실록 권75 선조 29년 5월 17일(계미) 【22집 708면】 207
성균관 진사 이육 등이 성균관의 재건을 상소하니 담당관서에서
처리하도록 승정원에 지시하다
1190. 선조실록 권75 선조 29년 5월 20일(병술) 【22집 710면】 209
사간원이 문묘 중수비를 공용으로 전용한 호조 관원의 처벌을
요청했으나 거절하다
1191. 선조실록 권75 선조 29년 5월 22일(무자) 【22집 712면】 210
세자빈의 산실을 배설하다

1192. 선조실록 권75 선조 29년 5월 24일(경인) 【22집 712면】 210
명나라 사신 왕이길을 접견하고 전송하다
1193. 선조실록 권75 선조 29년 5월 28일(갑오) 【22집 713면】 211
접대도감에서 명의 때문에 따라 서울 및 각지에서 탐학한 명나라
장수들의 사례를 보고하다
1194. 선조실록 권76 선조 29년 6월 1일(정유) 【23집 1면】 213
임금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1195. 선조실록 권76 선조 29년 6월 3일(기해) 【23집 5면】 213
한성우윤 유자신이 일본에 사신을 보낼 수 없다는 뜻으로
의논드리다
1196. 선조실록 권76 선조 29년 6월 10일(병오) 【23집 8면】 214
운성령 이현이 내성을 쌓아 도성을 지키는 방안과 경기 고을을
조정하여 서울 방어를 강화하자는 안 등을 건의하다
1197. 선조실록 권76 선조 29년 6월 11일(정미) 【23집 8면】 215
비변사가 섭유격의 권려가를 서울에서 인쇄하여 널리 반포할 것을
아뢰다
1198. 선조실록 권76 선조 29년 6월 15일(신해) 【23집 12면】 216
사헌부에서 상변 군사의 군장 점열을 연기할 것을 청하다
1199. 선조실록 권76 선조 29년 6월 25일(신유) 【23집 21면】 216
섭유격의 건의 중 서울 성벽의 보강 등 수용할 만한 건에 대해
관련 사항을 회첩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로 하다
1200. 선조실록 권77 선조 29년 7월 1일(병인) 【23집 25면】 218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1201. 선조실록 권77 선조 29년 7월 11일(병자) 【23집 30면】 218
사헌부가 서울의 호위에 우선을 두고 지방 변란 진압에는 일부
병력만 파견할 것을 건의하다

1202. 선조실록 권77 선조 29년 7월 19일(갑신) 【23집 32면】 219
병조판서 이덕형이 역적들의 공초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일로 상소를 올리다
1203. 선조수정실록 권30 선조 29년 7월 【25집 657면】 220
충청도 홍산에서 종성의 서인 이몽학이 군사를 모아 난을 일으키다
1204. 선조수정실록 권30 선조 29년 7월 【25집 658면】 222
난의 일으킨 이몽학이 그 부하에게 살해당하고 적의 무리는 해산되다
1205. 선조수정실록 권30 선조 29년 7월 【25집 658면】 223
이몽학의 모사 한현을 잡아 심문하니 김덕령 곽재우 등이 연루되었다고 자백하다
1206. 선조수정실록 권30 선조 29년 7월 【25집 659면】 224
명나라 유격장군 섭상이 군문위차의 자격으로 서울에 오다
1207. 선조실록 권78 선조 29년 8월 1일(병신) 【23집 37면】 224
도원수 권율이 역적 모천지의 공초와 유경룡을 청양에서 행형한 경위를 보고하다
1208. 선조실록 권78 선조 29년 8월 2일(정유) 【23집 38면】 225
사헌부에서 연분을 하하등으로 일괄 평가하는 사안에 문제를 제기하여 다시 조사할 것을 건의하다
1209. 선조실록 권78 선조 29년 8월 6일(신축) 【23집 40면】 226
도성의 사대문에서 기청제를 거행하다
1210. 선조실록 권78 선조 29년 8월 23일(무오) 【23집 47면】 226
추국청에서 형장을 맞다 죽은 김덕령의 군중 장사들을 효유할 것을 아뢰다
1211. 선조수정실록 권30 선조 29년 8월 【25집 659면】 227
김덕령이 옥에서 고문 받다가 죽으니 남도의 군민들이 원통하게 여기다

1212. 선조실록 권78 선조 29년 8월 23일(경신) 【23집 47면】 229
 홍문관에서 종묘 및 문묘의 친향, 민심의 위무, 하의상달 등에
 관해 아뢰다
1213. 선조실록 권78 선조 29년 8월 27일(임술) 【23집 48면】 234
 비망기로 병이 심하여 정무를 보기 어려우니 세자가 섭정하도록
 전교하다
1214. 선조실록 권78 선조 29년 8월 28일(계해) 【23집 50면】 238
 사알 흥택의 말 가운데 세자도 침문이 닫혀 있어 계사를 들이지
 못했다고 하다
1215. 선조실록 권78 선조 29년 8월 28일(계해) 【23집 50면】 238
 동궁이 섭정의 명을 거둘 것을 아뢰다
1216. 선조실록 권78 선조 29년 8월 29일(갑자) 【23집 50면】 239
 승전색 민희건의 말에 궁궐문을 더 굳게 닫아 입계할 길이 없게
 되었다고 하다
1217. 선조실록 권78 선조 29년 8월 29일(갑자) 【23집 50면】 239
 동궁이 섭정의 명을 거둘 것을 아뢰다
1218. 선조실록 권79 선조 29년 윤8월 1일(을축) 【23집 51면】 240
 임금의 정릉동 행궁에 머물다
1219. 선조실록 권79 선조 29년 윤8월 6일(경오) 【23집 55면】 240
 섭정의 뜻을 밝힌 후 승전색 민희건을 체차하는 등 왕에게 계달할
 방법을 제한하다
1220. 선조실록 권79 선조 29년 윤8월 8일(임신) 【23집 56면】 241
 세자 섭정을 관철하기 위해 비망기로 계사를 들이지 말라고
 승정원에 하교하다
1221. 선조실록 권79 선조 29년 윤8월 13일(정축) 【23집 61면】 241
 정원이 향실·종묘 등의 제사에 전향하는 단자에 ‘계’자 찍어주기를
 청하다

1222. 선조실록 권80 선조 29년 9월 1일(갑오) 【23집 73면】 241
 임금이 정릉동 행궁에 머물다
1223. 선조실록 권80 선조 29년 9월 4일(정유) 【23집 73면】 242
 호조에서 황해도만의 공물 감면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자 타 지역에서도 재해에 따라 감면을 실시하라고 하다
1224. 선조실록 권80 선조 29년 9월 6일(기해) 【23집 74면】 244
 건원릉을 친히 참배하려는 의사를 우승지에게 전교하다
1225. 선조실록 권80 선조 29년 9월 6일(기해) 【23집 74면】 244
 건원릉 참배를 안개가 걷힌 후 추워지기 전에 시행하기로 하다
1226. 선조실록 권80 선조 29년 9월 8일(신축) 【23집 74면】 245
 건원릉은 임금이 친히 참배하고 현릉은 대신이 대신 참배하기로 결정하다
1227. 선조실록 권80 선조 29년 9월 8일(신축) 【23집 75면】 245
 건원릉·현릉 참배시 역사할 백성을 뽑는 등의 일을 하지 말라고 이르다
1228. 선조실록 권80 선조 29년 9월 14일(정미) 【23집 77면】 246
 병조에서 능에 거동할 때 항왜를 이주시키지 않고 감시하는 방안을 아뢰다
1229. 선조실록 권80 선조 29년 9월 17일(경술) 【23집 77면】 246
 건원릉과 현릉에 참배하다
1230. 선조실록 권80 선조 29년 9월 18일(신해) 【23집 77면】 247
 수직을 비운 수문장과 함부로 문을 연 별장을 추고하기로 하다
1231. 선조실록 권80 선조 29년 9월 18일(신해) 【23집 77면】 247
 대가를 수행하지 않은 운검차비를 추고하기로 하다
1232. 선조실록 권80 선조 29년 9월 19일(임인) 【23집 77면】 248
 사간원에서 수직을 비운 수문장 등의 추국을 청하다

1233. 선조실록 권80 선조 29년 9월 20일(계축) 【23집 78면】 248
비변사가 염초를 끊고 조총에 능한 항복한 왜인을 훈련도감에
머물게 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1234. 선조실록 권80 선조 29년 9월 24일(정사) 【23집 78면】 249
경연관과 물가·역마·종이 등의 공상에 대해 의논하다
1235. 선조실록 권80 선조 29년 9월 28일(신유) 【23집 79면】 253
사헌부의 건의로 도성 일대의 나무 남벌을 금지하지 못한 한성부
관원 등을 처벌하기로 하다
1236. 선조실록 권80 선조 29년 9월 29일(임술) 【23집 79면】 253
유성룡이 종묘 신위의 위치에 대해 대신들과 논의할 것을 건의하다
1237. 선조실록 권81 선조 29년 10월 1일(갑자) 【23집 79면】 254
임금이 정릉동 행궁에 머물다
1238. 선조실록 권81 선조 29년 10월 7일(경오) 【23집 81면】 254
예조에서 종묘 신위의 위치와 제사 복색에 대한 대신들의 의견을
아뢰다
1239. 선조실록 권81 선조 29년 10월 21일(갑신) 【23집 85면】 260
이원익 등이 기인 및 서울에 납부하는 공물의 방납 폐단과 장수의
기용 등에 대하여 아뢰다
1240. 선조실록 권81 선조 29년 10월 25일(무자) 【23집 88면】 271
동짓날 서울에 체류하는 명나라 관원에게 잔치를 베풀도록
지시하다
1241. 선조실록 권81 선조 29년 10월 26일(기축) 【23집 88면】 271
여인 한 사람이 궁궐 안 도총부 앞까지 무단 침입하여 징을 치게
한 이유로 남문 수문장의 추고를 결정하다
1242. 선조실록 권82 선조 29년 11월 1일(계사) 【23집 89면】 272
임금이 정릉동 행궁에 머물다

1243. 선조실록 권82 선조 29년 11월 1일(계사) 【23집 89면】 272
경연에서 주역을 강하고, 서울에서 병력을 훈련하는 일과 배릉
시의 조처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다
1244. 선조실록 권82 선조 29년 11월 7일(기해) 【23집 95면】 280
경연을 열고, 유성룡·이덕형 등과 공물·진상 등의 징수법을 비롯한
현안과 일본과의 전쟁 수행 방안 등을 논의하다
1245. 선조실록 권82 선조 29년 11월 7일(기해) 【23집 97면】 289
대신 및 비변사 유사당상과 함께 서울의 곡가 양등을 비롯한
현안과 일본과의 전쟁 수행 방안 등을 논의하다
1246. 선조실록 권82 선조 29년 11월 9일(신축) 【23집 101면】 300
비변사에서 이원익이 서울에서 군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명군의 서울 입성 등에 대해 보고하다
1247. 선조실록 권82 선조 29년 11월 9일(신축) 【23집 102면】 301
해평부원군 윤근수가 북도 병력을 데려와서 서울을 방비하는 건과
수군 지휘관의 운영 등에 대해 건의하다
1248. 선조실록 권82 선조 29년 11월 12일(갑진) 【23집 105면】 305
왜적의 시급한 위협을 알려 명나라 군의 서울 진입을 서두르도록
요청하는 자문을 보내기로 하다
1249. 선조실록 권82 선조 29년 11월 13일(을사) 【23집 105면】 306
전쟁의 재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의 절대 사수와 전국적인 방어
체제를 건의하는 대신들의 의견을 듣다
1250. 선조실록 권82 선조 29년 11월 14일(병오) 【23집 108면】 312
명나라 군사의 서울 입성에 즈음하여 지공 방안을 결정하다
1251. 선조실록 권82 선조 29년 11월 14일(병오) 【23집 108면】 313
전쟁의 재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심을 수습하여 서울을 굳게
사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하다

1252. 선조실록 권82 선조 29년 11월 15일(정미) 【23집 108면】 313
 왜병의 공세가 격해질 경우 파천하는 계책에 대해 의논하라고
 전교하다
1253. 선조실록 권82 선조 29년 11월 15일(정미) 【23집 108면】 314
 서울 방어를 전제로 강화 파천을 건의하는 비변사의 의견을
 거부하다
1254. 선조실록 권82 선조 29년 11월 15일(정미) 【23집 109면】 316
 고언백을 서울에 머물게 하여 서울 숙위에 투입하기로 하다
1255. 선조실록 권82 선조 29년 11월 17일(기유) 【23집 111면】 316
 도체찰사 이원익을 인견하여 서울 각사의 공물 납부 문제, 군량
 조달, 장수의 인물평 등에 대해 의견을 듣다
1256. 선조실록 권82 선조 29년 11월 18일(경술) 【23집 114면】 328
 제주에서 올라온 말을 빼돌린 사복시 관원을 추고하고 담당
 제조에게 경고할 것을 전교하다
1257. 선조실록 권82 선조 29년 11월 19일(신해) 【23집 114면】 328
 홍문관에서 파천에 대한 논의보다는 서울을 방어하여 힘껏 싸울
 계책을 세우자고 건의하다
1258. 선조실록 권82 선조 29년 11월 20일(임자) 【23집 115면】 332
 도성을 지키는 방책을 의논하여 시행하라고 전교하다
1259. 선조실록 권82 선조 29년 11월 24일(병진) 【23집 117면】 333
 비변사에서 도성의 수성책에 대해 아뢰다
1260. 선조실록 권82 선조 29년 11월 26일(무오) 【23집 118면】 335
 대신을 접견하고 도성의 방어체제 강화를 비롯한 제반 전시 대비
 체제를 논의하다
1261. 선조실록 권83 선조 29년 12월 1일(계해) 【23집 124면】 349
 임금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1262. 선조실록 권83 선조 29년 12월 2일(갑자) 【23집 124면】 350
 도성을 지킬 계책을 기일을 정하여 마련할 것을 전교하다

1263. 선조실록 권83 선조 29년 12월 2일(갑자) 【23집 124면】 350
비변사에서 날씨가 추워 공역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검사에
대한 보고를 지연하였다고 해명하다
1264. 선조실록 권83 선조 29년 12월 5일(정묘) 【23집 125면】 352
서울 수성을 위해 한강선 방어를 강화하는 등 왜적에 대비하는
여러 방도를 정원에 전교하다
1265. 선조실록 권83 선조 29년 12월 5일(정묘) 【23집 126면】 355
훈련도감에게 포수·살수의 훈련 방법과 무기제조에 대해
회계하도록 지시하다
1266. 선조실록 권83 선조 29년 12월 8일(경오) 【23집 127면】 357
사간원에서 종묘와 사직 설행 제사는 의정이나 1품 이상 관원이
담당하게 하자고 건의하다
1267. 선조실록 권83 선조 29년 12월 8일(경오) 【23집 127면】 357
훈련도감에서 서울 인근의 잡색군에서 병력을 충당하는 등 포수와
살수를 확보·교육하는 제반 방안에 대해 보고하다
1268. 선조실록 권83 선조 29년 12월 8일(경오) 【23집 128면】 359
서울 방어를 위해 강변을 수비하는 방안에 대하여 비변사에서
아뢰다
1269. 선조실록 권83 선조 29년 12월 12일(갑술) 【23집 129면】 364
서울에 와있는 평안도 무사의 출신과 수효 파악을 정원에 전교하다
1270. 선조실록 권83 선조 29년 12월 12일(갑술) 【23집 129면】 364
병조에서 전쟁 유경험자 무과 출신자로서 평안도 출신 무사를
서울에 징발했음을 보고하다
1271. 선조실록 권83 선조 29년 12월 12일(갑술) 【23집 129면】 365
접대도감에서 이덕형이 섭유격과 왜병이 재침할 경우에 대비하는
방안에 대해 나눈 대화를 보고하다

1272. 선조실록 권83 선조 29년 12월 16일(무인) 【23집 130면】 366
 서울 시민에게 군량미 징수 하는 방안 및 한강 방어법 등 왜적의 침입에 대한 대비책을 비변사에서 보고하다
1273. 선조실록 권83 선조 29년 12월 21일(계미) 【23집 133면】 371
 통신사 황신이 일본국에서 돌아와 올린 서계장
1274. 선조실록 권83 선조 29년 12월 21일(계미) 【23집 134면】 377
 망궐례를 연습하는 장소가 누추하다는 이유로 담당 관원을 처벌하기로 하다
1275. 선조실록 권83 선조 29년 12월 21일(계미) 【23집 134면】 378
 임금이 일본에 다녀온 황신을 인견하여 일본의 사정과 전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다
1276. 선조실록 권83 선조 29년 12월 25일(정해) 【23집 138면】 387
 황신이 말한 적의 형세에 대해 대신 등과 의논하면서 정국 현안과 조세 징수의 허실 등에 대해 논의하다
1277. 선조실록 권83 선조 29년 12월 29일(신묘) 【23집 141면】 394
 조선국왕이 총독경략군문에 보내는 자문